

# 다큐드라마 「카미유 클로델」의 조각품 제작과정과 사실성 Sculptural production procedure and Truth of the docudrama *Camille Claudel*

차 영 선  
아주대학교

Cha, young-sun  
Ajou University

## 요약

다큐드라마 「카미유 클로델」은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의 조각품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조각 작업의 과정을 재현하면서 최대한 다큐드라마의 사실성을 보여주려고 한다.

## I. 서론

근대 조각의 시조라 불리는 프랑스 천재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을 비롯해서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카미유 클로델(Camille Claudel 1864-1943)의 인생이야기는, 소설, 연극, 영화, 뮤지컬 등, 여러 가지 콘텐츠로 제작되었다[1]. 1986년에는 영화로 제작되어 개봉(1988)되면서 큰 성황을 이루었다[2]. 특히 영화 「카미유 클로델」(1988년)은 생동하는 영상과 음향을 통한 멀티미디어의 기술 매체로서 미술,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집결하여 보다 폭넓고도 구체적인 모습들을 생생히 재현함으로써, 영상문화콘텐츠라는 신매체와 조각의 이상적인 결합을 이루는 한 예술가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드라마(Docudrama)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다큐드라마 「카미유 클로델」은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의 조각 작품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조각 작업의 과정을 재현하면서 최대한 다큐드라마의 사실성을 보여주려고 한다.

## II. 조각품 제작과정 재현

「카미유 클로델」은 관객들이 조각과 접목된 영화를 보며 조각 제작과정과 함께 새롭게 깨달은 조각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도록 하여 「카미유 클로델」은 전문가나 관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조각을 향유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다. 이 영화는 예술인이든, 일반인이든 그 관람 및 시청대상에게 이해를 돕는 영상물로서 로댕과 카미유의 조각술에 대한 성실한 접근, 조각품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작업과정에 대한 수록으로 균형 잡혀있다.

영화는 첫 장면부터 예술 조각에 대한 소조 수업으로 시작되며 진흙 채취와 인물상(「지강티」)을 만들기 위해 막대기등에 철사를 감아 진흙 소조의 뼈대를 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때마침 노트르담 드 데 상 작업실에 도착한 로댕은 카미유의 작품 「늙은 엘렌느」와 「지강티」를 보고 그녀의 천재성을 한 눈에 알아본다. 하지만 카미유의 그림 1 「웅크린 남자」 조각상 앞에서 로댕은 자신의 조각 이론과 기법을 설명한다. 또 그림 2. 모

델인 지강티의 목을 비틀어 보이며 모델의 근육이 도드라져 보이도록 하는 로댕은, 동적인 포즈나 견고함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기력과 근육 그리고 육감적인 인체 처리 등을 완벽하게 표현해 낼 수 있다는 자신만의 조각기법을 시사하기도 한다. “목을 조각하려면 이렇게 힘을 쥐야해. 모델을 생각한 나머지 편한 포즈만 취하게 하고 있어.” 오랜 기간의 구상과 계획 끝에 조소작업에 착수한다는 로댕의 조각비법은 또 조각 수련생의 말을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된다. 뿐만 아니라 카미유의 두상을 빗기 위해 로댕이 두 눈을 감고 작품을 구상하는 그림 3. ‘윤곽 감별법’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기법에 의해서 실제 진흙 소조를 빗어 만들어낸 그림 4. 카미유 두상과 같은 완성된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 그림 1. 조각품 「웅크린 남자」 ▶▶ 그림 2. 모델 지강티의 목을 비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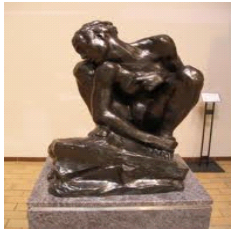
▶▶ 그림 3. 윤곽 감별법 ⇒ ▶▶ 그림 4. 카미유 두상

또 페이퍼로 문질러서 완성된 작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윤이 나도록 마무리하는 법, 작업도중 물에 적신 천을 진흙 소조에 덮어두는 습도 조절 법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제시한다. 조각재료에 대한 정보로는, 진흙의 종류(초록색, 검은색) 및 경도에 따른 돌의 종류(대리석, 화강암 그리스 파로스 섬의 백색 대리석)와 연장의 종류(망치, 끌,

조각칼) 그리고 연장을 불에 달구어 버리는 법, 즉, 날이 무딘 연장을 불에 달궈 날카롭게 만드는 법도 제시되고 있다.

조각 기교가 조각 재료 및 도구와 함께 배우에 의해서 제시되는 동안, 감독은 예술가의 조각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영화의 씬 마다 소란한 분위기의 음향을 도드라지게 한다. 이것은 예술가의 조각 작업 진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하나의 조각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 볼 수 있게 한다. 당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원음(조각칼, 망치, 끌)의 청각 소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간접적인 형상화작용을 통해, 시각·청각, 조각·영화의 만남은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재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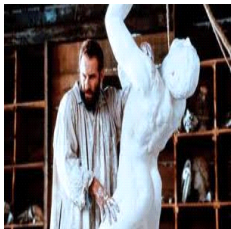
로맹은 또한 그림 4 「웅크린 여인」을 조각하면서 나체 모델의 “측면 윤곽은 어둠속에서만 보인다”는 그림 5. 윤곽 가능 법 조각해법을 깨우치도록 한다. 따라서 모델이 앉아있는 둥근 탁자를 카미유 앞에서 빙글빙글 돌려가며 측면 윤곽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4. 「웅크린 여인」



▶▶ 그림 5. 측면 윤곽 가능법



▶▶ 그림 6. 「아담」



⇒ ▶▶ 그림 7 「나는 아름답다」

더 나아가 그림 4 「웅크린 여인」을 그림 6 「아담」위에 올려놓아 두 작품을 포개 놓아 만든 앙상블 조각 작품, 그림 7 「나는 아름답다」가 만들어지는 제작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같은 조각기법은 ‘삼차원적인 신체상’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19세기 입체 조각의 특성은 더 이상 보완할 필요가 없는 앞뒤, 좌우, 상하의 완벽한 통합체를 이룬다. 19세기 최고조각가의 영감과 조각술을 담은 이 같은 장르의 영화 「카미유 클로델」은 개봉되자마자 화가 지망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 영화는 특히 다큐드라마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카미유가 로맹에게 지속적으로 예술적인 영감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일례로, 영화는 그림 8 「칼레의 시민」 조각모델 선정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제작과정을 보여주면서 카미유가 이 작품제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한다. 사실 카미유는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로맹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림 8. 칼레의 시민의 두상을 만들 때 시민을 걱정하는 로마 집정관들의 고뇌하는 표정은, 카미유가 제작해 놓은 조각들로부터 로맹이 영감을 얻는다. 그래서 로맹은 카미유가 다 완성해 놓은 집정관들 얼굴조각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그녀가 단지 기억만으로 만든 거야.” 카미유는 모델 없이 한번 본 기억만으로 모델 그대로를 조각품으로 복원해 내는, 타고난 예술적 천재성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뛰어난 관찰력과 표현력은 “한두 번 보고 곧 그대로 해내는 재주”라는 뜻의 ‘높은 눈썰미’에서 비롯된다.



▶▶ 그림 8. 「칼레의 시민」

예술품의 가치를 담은 영화 「카미유 클로델」은 로맹과 카미유의 조각 이론과 기술, 제작 과정을 영상화함으로써 카미유와 로맹이 제작한 작품을 도처에서 찾아내는 즐거움을 갖다 준다.

한편, 이 영화에서 우리는, 훌륭한 조각가이자 로맹의 창작에 활력을 주는 존재였지만 로맹의 후광에 가려 과소평가된 카미유라는 실제인물을 바탕으로 한 다큐드라마이다. 따라서 영화의 사실성이 가장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하는 이야기의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연출자의 주관이 배제된, 객관성과 사실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간적인 제약은 받는 짧은 줄거리의 영화에 조각가의 인생 전체를 꿰뚫어 넣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한 과거의 재현이 단지 영화감독에 의해서 완성된 이미지들로 구성된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특히 다큐드라마 제작의 끊임없는 화두라 할 수 있는 사실성의 문제에 근접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으로서 영화를 준비할 때와 촬영 시 얼마나 실제 자료에 충실한가를 매우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3].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조각 이론과 기법뿐 아니라 조각가, 조각품, 작업실, 조각상, 전시회, 등, 조각 예술 전반에 걸친 해석을 시도한다. 예술품이 전시장에 진열되어있는 모습, 또 조각들 앞에 서서 관객들이 나누는 대화까지 들려줌으로써, 조각 인을 둘러싼 일화가 드라마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술과 영화의 만남 가운데 영화 「카미유 클로델」이 어떻게 조각기술을 전수하며 조각예술과 예술가의 삶을 복원하는지 살펴보았다. 따라서 영화라는 시각적 매체를 통해서 조각 작품을 감상하고, 조각기법과 이론 등 조각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큐드라마의 스토리를 음미하면서, 조각가 카미유의 삶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었다.

## ■ 참고 문헌 ■

- [1] Dominique Bona, Camille et Paul : La passion claudel, pp. 442, Paris: Parution, 2008.  
Reine-Marie Paris, Camille Claudel (1864-1943), pp.383, Paris: Gallimard, 1984.
- [2] Bruno Nuytten, Camille Claudel, 175분, Produced by I. Adjani and C. Fechner, 1988.
- [3] 차영선 “카미유 클로델의 리얼리즘 - 내러티브의 진실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pp.1-2, 2014.